

해리스의 사상과 분류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rris's Thought and Classification Scheme

김정현(Jeong-Hyen Kim)**

【초 록】

이 연구는 해리스 분류법과 관련하여 해리스의 사상적 활동과 해리스 당시 미국의 문헌분류 흐름을 살펴본 후,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원리 및 내용, 베이컨과 헤겔, DDC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체계는 무엇보다 베이컨의 분류순서를 도치시킨 역베이컨식으로 배열하였다고 해리스가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해리스 분류법에는 어디에도 헤겔의 사상을 반영하였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분석결과 해리스 분류법이 발표된 시기에 그는 헤겔주의자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헤겔 해설자였으므로 그의 분류법에는 헤겔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겔의 사상이 분류체계 곳곳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베이컨의 분류사상이 반영되어 역베이컨식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주장이며,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베이컨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존스톤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해리스 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해리스, 베이컨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Harris's philosophical ideas, American library classification in the Harris's era, and relationship to Bacon, Hegel, DDC based on the Harris's classification system. As is generally known so far, Harris himself described to have derived his classification from inverted Baconian arrangement. It is nowhere to be found that Harris reflected on Hegel's philosophical ideas

in his scheme. But on this study, Harris was a Hegelian and a leading American exponent of ideas of Hegel at that time. So we can analogize being reflected on Hegelian philosophy in the Harris's scheme and actually the Hegelian basis can be founded for much of Harris's scheme. Also we can find that Harris's scheme springs directly from Bacon and indirectly Johnston's scheme.

【Keywords】

Harris's Classification, DDC, Harris, W.T., Bacon, F.

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예로부터 인간은 사물이나 사고에 대하여 그 성격 또는 원리에 따라 유사성을 부여하고 이를 체계화 하는 관습을 지녀왔다. 이러한 관습들은 그 대상이나 목적,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전수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기록된 자료의 문화적 유산을 정리,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많은 분류법에는 이러한 성격과 원리가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법들은 현존하는 最古의 분류법인 B.C. 3-4세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분류법으로부터 현대의 분류법에 이르기까지 세계각지에서 여러 유형으로 개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체계들은 대개 당시의 학문내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가운데 1870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도서관(St. Louis School Library)의 관장이었던

* 이 논문은 2008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논문접수일자 : 2010년 4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6월 25일

해리스(W.T. Harris 1835-1909)가 창안한 '해리스 분류법'이 있다. 이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서가배열, 목록배열, 대출과 반납에 사용한 최초의 분류법으로 듀이십진분류법(DDC)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DDC 초판의 서문에도 해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의 글이 나타나 있을 만큼 해리스 분류법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DDC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76년 초판이 발간이후 줄기차게 개정되고 많은 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정작, DDC의 창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해리스의 분류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체계는 무엇보다 베이컨의 분류순서를 도치시킨 역베이컨식으로 배열하였다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철학자 헤겔의 지식구분 원리를 활용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리스 분류법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DDC의 주류설정 원리가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리스의 사상활동과 당시의 문헌분류의 흐름 및 해리스 분류법의 특성을 분석한 후, 베이컨, 헤겔철학, DDC의 구조와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해리스 분류법이 문헌분류법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DC가 나오기 이전인 1870년에 창안된 해리스 분류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며, 주로 문헌조사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① 해리스의 사상적 활동 및 당시의 문헌분류 동향, ②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원리 및 내용, ③ 해리스 분류법과 베이컨, 헤겔철학, DDC와의 관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한 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1.2 선행연구

아래의 내용은 해리스의 사상적 활동과 당시의 문헌분류 동향, 그리고 해리스 분류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요약한 것이다.

해리스(Harris 1870)는 '도서분류법(Book Classifi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분류법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해리스 분류법'으로 불리고 있다.

레이디커(Leidecker 1945)는 'DDC가 해리스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해리스 분류법이 DDC의 창안

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라지아노(Graziano 1959)는 헤겔 철학이 DDC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리스 분류법과 베이컨의 학문분류와의 관계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라몽테인(LaMontagne 1961: 1972)은 미국에 있어 문헌분류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면서 해리스 당시의 분류상황과 베이컨, 존스톤, 헤겔, DDC 등의 특성을 소개하였고, 코마로미(Comaromi 1983: 1976)는 DDC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면서 DDC의 형성과정에 미친 해리스 분류법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小倉親雄(1977)은 DDC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면서 해리스 분류법이 미친 영향과 특성을 소개하고 있으며, 鯨井俊彦(1984)은 헤겔의 철학적 사상이 해리스의 사상에 수용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헤겔의 철학사상이 해리스 분류법에도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도 加藤宗厚(1959), 綠川信之(1996) 등이 해리스 분류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정필모(1971)는 국내 도서관계에 처음으로 해리스 분류법을 소개하였으며, 김명옥(1993), 오동근(2001), 윤희운(2010) 등이 해리스 분류법을 소개하고 있다.

2. 해리스의 사상적 활동과 문헌분류의 흐름

2.1 해리스의 사상적 활동

해리스는 세인트루이스에서 22년간(1858-1880), 콘코드에서 9년간(1880-1889), 워싱턴에서 17년간(1889-1906) 활동하면서 '미국공립학교 제도와 교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며, '일찍이 서부대륙에 나타났던 위대한 철학적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교육계와 사상계로 부터 받고 있다(鯨井俊彦 1982, 27). 이와 같이 해리스는 미국의 교육자뿐만 아니라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상적 흐름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리스는 1835년 코네티컷주의 South Killingly에서 태어나 1854년 가을 예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3학년 때인 1857년 1월 중퇴 하였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일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Blonson Alcott의 선협철학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예일대학 중퇴 후에 동년 8월 학문에 뜻을 두고 신흥 도시인 세인트루이스로

향했다. 해리스는 세인트루이스에서 1858년부터 1880년까지 생활하게 되며, 해리스가 22세 때인 1858년 4월 교원으로 채용된 후, 1868년 5월 세인트루이스시의 교육장이 되어 1880년까지 근무하면서 교육자, 교육행정가, 교육철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鯨井俊彦 1984, 12).

교육자로서 해리스는 인간이 그 불멸의 운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목적을 생각하는 기초로서 ① 높은 이상, ② 영원의 진실, ③ 수세기 동안 역사의 검증에 견디어온 문명의 제도를 발전시킨 인간을 인도하여 고무시킨 사상 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庭野義英 2000, 11-12). 즉, 그는 교육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인간이 신의 성질에 관여함으로써 인간의 운명은 불멸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한편 해리스는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철학연구와 사색을 통해 특히 칸트, 피히테, 쉐링, 헤겔 등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동료와 함께 철학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자주 갖게 되었으며, 이때 그는 헤겔철학 연구자인 부룩메이어(H.C. Brokmeyer)를 만났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1866년 세인트루이스 철학협회를 설립했으며, 이 협회는 사변철학(思辨哲學), 특히 헤겔철학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The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를 발행했다(庭野義英 2000, 11-12). 해리스 분류법에 관한 논문도 1870년 이 저널의 제4권에 발표하여 도서관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해리스의 철학적 활동은 1879-1887년 콘코드 하기 철학학교(Concord Summer School, Mass)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어린이들이 도시사회에 있어야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도덕적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의 주요한 요소는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세계를 보고 의사를 소통하는데 5개의 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庭野義英 2000, 12). 그는 자연주의자는 아니었으며, 헤겔철학의 영향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에 중시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2.2 해리스 당시의 문헌분류 흐름

도서관업무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던 해리스가 그 시기에 새로운 분류법을 발표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해리스가 세인트루이스 시교육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미국도서관계가 그 후의 문헌분류사

상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해리스를 둘러싸고 있는 도서관계의 입장에서 고찰할 수 있다.

2.2.1 세인트루이스 도서관과 해리스와 관계

세인트루이스 도서관의 정식 명칭은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도서관(St. Louis Public School Library)'이며, 해리스의 전임자였던 교육장 디볼(I. Divoll)의 노력으로 1865년에 개설된 것이다. 그간의 사정은 트로엔(S.K. Troen)의 『시민과 학교: 세인트루이스시 제도의 형성과정(1838-1920)』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선 당시의 세인트루이스 시민이 공립학교제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도서관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리스가 교육장이 된 전후의 세인트루이스시 공립학교제도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학교교육(formal learning) 나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졸업 후 직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어린이들에게 직업을 위해 지도할 실천력을 양성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시의 교육자들은 어린이교육의 주요한 부분과 특히 직업적 기술의 획득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학교경험과는 독립하여 제도적으로 달성하려는 기대로서 두 개의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립학교도서관이며, 다른 하나는 야간학교·학급(the evening schools, classes)이었다. 즉, 이러한 두 개는 세인트루이스에 있어 19세기중엽 두 가지 혁신사상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며, 세인트루이스 시민의 신념이 이러한 제도적인 표현을 실현시킨 때문이다. 상술한 트로엔은 이러한 두 가지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인트루이스시에 있는 학교에 어린이의 출석율이 낮더라도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으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鯨井俊彦 1984, 13).

한편 세인트루이스 교육자들이 공립학교도서관의 정당성을 언급할 때의 논거는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학교를 뛰어넘어 진보를 위한 개인적인 진취성을 존중하는 경우에 나온다. 학교는 해리스에 의하면 특수한 기능을 지닌 노동자를 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이 자기개선의 길을 따라 그것을 고무함으로써 보다 잘 봉사”하는 경우이다. 해리스를 포함하여 교육자의 관심은 일반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산업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립학교도서관을 세운 이유는 개인이 졸업 후에도 진보하는 열쇠로서 자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상술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鯨井俊彦 1984, 14).

디볼의 뒤를 이어받은 해리스가 1868년 이후 시의 교육장으로 공립학교 도서관 운영에 책임을 갖는 위치에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류법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리스는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입장에서 근대교육에 있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도서관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우수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해리스가 세인트루이스의 공립학교 도서관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고 했던 논리적 근거와 새로운 분류법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2.2.2 미국 도서관계에 있어 분류사상의 두 가지 흐름
해리스 당시 미국 도서관계에는 베이컨 분류법과 부루네 분류법이라는 두 개의 분류사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해리스 분류법의 결정 계기가 된 여러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베이컨 분류법

베이컨(F. Bacon, 1561-1626)은 1605년 *Advancement of Learning*(학문의 진보)과 1623년 라틴어 증보판인 *De Augmentis Scientiarum*에서 <표 1>에서와 같이 지식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따라 '인간의 지식'과 '신학'의 두 가지로 구분한 후, 먼저 '인간의 지식'을 학문연구에 필요한 정신능력에 따라 분류하였다(LaMontagne 1961, 83). 그는 인간의 정신능력을 기억, 상상, 오성의 3개로 구분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학문을 역사, 시학, 철학으로 설정하였다. 학문은 하나의 역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역사'를 제1구분으로 하여 첫머리에 배치하였으며, '철학'을 제3구분으로 하고 있다. 베이컨은 철학이라고 명명하고 보다 명확한 여러 과학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제2구분을 예술일반을 나타내는 '시학'이라 명명했다.

일반적으로 학문을 지식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한 정신능력에 의한 분류는 정당하지만 정신능력은 인간의 주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식은 단순히 주관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식의 집성인 학문은 객관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정신능력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실제로 대상의 분류이다. 베이컨의 분류도 제1차는 정신능력에 따른 것이지만 제2차적으로는 학문의 대상을 분류원리로 하고 있다. 더구나 정신능력을 엄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 생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여러 학문을 성질과 정신과의 구별 내지는 병렬시키고 있는 점, 시학을 상상에 의한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학 및 철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여러 과학의 특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한 분류로서 19세기 초까지 널리 채용된 것이다(加藤宗厚 1959, 36-37).

한편 미국 도서관계에는 초창기 분류가운데 가장 저명한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제퍼슨(T. Jefferson)이 1770년경 베이컨의 학문분류를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제퍼슨의 분류는 베이컨의 학문분류를 일부 수정한 달랑베르(d'Alembert)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초창기 분류의 바탕이 되고 있다(LaMontagne 1972, 25). <표 1>¹⁾은 베이컨, 달랑베르, 제퍼슨의 분류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2) 부루네 분류법

프랑스의 서지학자 부루네(J. Brunet)는 1780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1810년에 *Manual du libraire et de l'amateur de livres*(3권)가 출판되었으며, 세 번째 권인 *Table Methodique en Forme de Catalogue Raisonne*에 부루네의 분류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초의 판이 소개되어 있다. 최후의 판인 제5판은 1860-1865년에 전체 6권으로 출판되었다. 이후 부루네 분류법은 많은 서지학자들에게 의해 수정되면서 개선되어 왔다. 그리고 부루네 분류법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지만 1678년 J. Garnier의 *Systema bibliothecae collegii parisiensis Societatis Jesu*, 1679년 I. Boulliau의 *Catalogus Bibliothecae Thuanae* 등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아래 <표 2>²⁾에서와 같이 Garnier는 신학, 철학, 역사, 법률학의 4개 주류, Boulliau는 여기에 순수문학을 추가하여 5개 주류로 구성하고 있으며, 부루네는 이것을 다시 수정하여 신학, 법률학, 과학과 예술, 순문학, 역사의 5가지 주류로 구분하였다(LaMontagne 1961, 122-127).

1) <표 1>은 LaMontagne(1972, 36-39)이 소개한 분류표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한 것임.

2) <표 2>는 LaMontagne(1972, 126-129)이 소개한 분류표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한 것임.

<표 1> Bacon, D'Alembert, Jefferson의 분류체계

Bacon(1605)	D'Alembert(1763)	Jefferson(1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KNOWLEDGE History Natural Civil Poesy Narrative Dramatic Allegorical Philosophy Primary philosophy Natural theology Natural philosophy Human philosophy • THEOLOGY History Poesy Philoso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story Sacred Civil Natural Philosophy General Metaphysics God Man Nature Fine Arts Poetry Music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Engra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story Civil Natural Philosophy Moral Mathematical Fine Arts Architecture Gardening Painting Sculpture Music Poetry Oratory Criticism

<표 2> Brunet 분류체계의 발달

Garnie(1678)	Boulliau(1679)	Brunet(1810)	Peirce(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ology Philosophy History Jurispru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ology Jurisprudence History Philosophy Belles-Lett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ology Jurisprudence Sciences and Arts Belles-Lettres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ology Jurisprudence Sciences and Arts Belles-Lettres History Works Related to America

한편 부루네 분류법이 미국에서 최초로 채용된 것은 1830-31년에 걸쳐 3책으로 편찬된 하버드대학 도서관 목록(Harvard Catalogue)이며, 이는 당시 하버드대학의 사서였던 피셔(B. Peirce)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셔는 <표 2>에서와 같이 부루네 분류법에 '미국역사'를 추가하여 6개의 주류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LaMontagne 1961, 129-132). 그 후 약 25년간 미국 각지에 널리 채용됨으로써 미국도서관계는 결과적으로 베이컨 대 부루네의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3) 해리스 분류법

미국 문헌분류법의 주류를 둘러싸고 최후의 싸움은 1857년 세인트루이스 상업도서관(St. Louis Mercantile Library)에서 일어났다. 즉, 이 도서관은 1850년 부루네 분류법을 채용한 커티스(W.P. Curtis)가 장서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지만 이로부터 7년 후 1857년 이 도서관에 들어온 존스톤(E.W. Johnston)이 부루네 분류법을 그만두고 베이컨 분류체계를 채용하여 1858년 15,000책의 장서목록(분류항목이 550개가 넘고, 색인은 250개에 달함)

을 완성하였다(LaMontagne 1972, 28). 이리하여 결과적으로 같은 도서관에서 불과 8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2개의 대조적인 분류법을 바탕으로 장서목록이 작성된 것이다. 1858년에 세인트루이스 상업도서관에서 부루네 분류법을 제압하고 베이컨 분류체계가 채용된 점이 미국도서관계에 있어 그 후의 분류법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 이유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해리스에 의해 세인트루이스 공립도서관을 위한 분류법의 출현이었다. 해리스는 존스톤에 의해 적용된 베이컨 분류의 일반 지침을 채용하여 주류의 순서를 역으로 도치하고 세부항목 특히 과학(철학)을 재조직하였으며, 1870년 최종적으로 '역베이컨식'을 발표하였다. 해리스는 결과적으로 "18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도서관에 있어 분류법의 원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 후 듀이는 이것을 바탕으로 DDC를 창안하여 보급하게 된다(小倉親雄 1977, 243). <표 3>³⁾은 존스톤, 해리스, DDC의 분류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 3〉 Johnston, Harris, DDC의 분류체계

Johnston(1858)	Harris(1870)	DDC(1876)
9 <u>History</u>	<u>Science</u>	0 [General Works]
<u>Philosophy</u>	1 Philosophy	1 Philosophy
2 Theology	2 Theology	2 Religion
3 [Social Sciences]	3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3 Sociology
Jurisprudence	Jurisprudence	[Social Sciences]
Political Science	Politics	
Political Economy	Political Economy	
	Education	
1 Philosophy (Proper)	4 Philology	4 Philology
5 Natural Sciences	5 Natural Sciences	5 Natural Sciences
6 and Useful Arts	6 and Useful Arts	6 Useful Arts
3 Education		
4 Philology		
<u>Poetry</u>	<u>Art</u>	
8 Literature	7 Fine Arts	7 Fine Arts
7 Fine Arts	8 Literature	8 Literature
	9 <u>History</u>	9 History
0 <u>Polygraphs</u>	0 <u>Miscellany</u>	

3.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 원리와 내용

3.1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 원리

해리스는 자신의 ‘도서분류법’ 분류체계가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 제2부 제1장에 전개되어 있는 베이컨의 기본적인 구분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arris 1879, 115). 이하 내용은 해리스의 논문(Harris 1879, 115-121)을 바탕으로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 원리를 분석한 것이다.

모든 분류체계는 그 기초가 되는 철학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 해리스 분류법에 있어서도 베이컨의 정신(sole)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능력 즉, 기억(memory), 상상(imagination), 이성(reason)의 기본적인 구분을 사용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3개의 인식론 영역인 역사(history), 시학(poetry), 철학(philosophy)이 문헌분류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베이컨 자신은 문헌을 이러한 형태로 분류하는 것을 특별히 의도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다.

해리스는 베이컨의 분류를 검토하기에 앞서 부루네의 분류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부루네의 분류체계는 철학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그것은 알고 보면 어딘가 실제

적이며, 극단적으로 기억을 요구할 뿐 도서관원에게는 그 기초인 과학적 정당성의 어떠한 암시를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유(class)와 하위류(subclass)를 동등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유(genera)를 종(species)으로 혼동하고 있기도 하여 실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결국 부루네의 목록은 도서관보다는 파리의 서적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Harris 1879, 117).

여기에 비해 베이컨의 세 가지 정신능력에 의한 구분은 문헌의 분류에 있어서는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베이컨은 이 구분이 문헌의 분류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여 고유의 형태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베이컨의 시대에는 아직 과학(science)이 크게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리스는 베이컨의 분류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현대에는 반성(reflection)과 사변(speculation) 또는 오성(understanding)과 이성(reason)의 영역을 ‘과학’이라 부른다. 철학은 하나의 과학에 불과하다. 공상 또는 생산적 상상력의 영역은 예술 또는 미학이라 한다. ‘시학’이란 말은 창조적인 의미를 내포한 ‘Poieo’에서 왔으며, 생산적 상상력의 작품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Harris 1879, 117-118). 그리고 이 베이컨의 체계는 문헌분류 측

3) 〈표 3〉은 LaMontagne(1972, 182)이 소개한 분류표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한 것임.

면에서는 분명히 부적당하지만, 그 구분의 원리는 큰 가치가 있다. 도서관을 위해 사용하려면 그 정신을 충분히 파악한 후 베이컨이 부여한 항목의 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 분류체계를 보면 주구분(principle divisions)은 형식(form)이 원리를 안내하는 반면, 소구분이나 항목(minor divisions and sections)은 내용(content)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베이컨의 체계를 역으로 하여 과학(Science)을 가장 먼저 오게 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과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Harris 1879, 119-121).

- I. 과학(Science)은 의식적 체계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 해당된다.
- II. 예술(Art, Aesthetics)은 유기체 또는 무의식적 체계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 해당된다.
- III. 역사(History)는 시간, 공간과 같은 우연적인 관련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 해당된다.

문헌분류 원리란 코플릿지(Coleridge), 암페르(Ampere), 콩트(Comte) 및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등 학문 분류학자에 의해 사용된 간편한 원리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상호 제한되어 있는 복합원리(compound principle)이다. 즉, 분류는 분류체계에 있어 가장 단순성을 지니고 주제와 소재(subject-matter)의 두 가지 원리를 주의 깊게 결합한다는 복합원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복합원리를 분류작업에 적용할 때에는 그 안

내 원리(guiding principle)로서 I. 주류구분(Main divisions) II. 강목구분(Subdivisions) III. 부록(Appendices) IV. 하이브리드(Hybrids)라는 일련의 4개 규칙을 생각하고, I.-IV.의 안내 원리를 설명과 함께 각각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 원리에 따라 <그림 1>의 기본적인 분류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3.2 해리스 분류법의 내용

아래의 내용은 <그림 1>에 제시한 해리스 분류법의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해리스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분류법의 구조와 분류항목을 상술한 것이다(Harris 1870, 122-129).

(A) 과학(Science)

I. 철학(Philosophy): 가장 일반적인 원리 즉, 모든 존재의 형식과 원형이다. 그것은 가장 엄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지니며, 다른 학문에 있어 모든 체계의 원천이다.

II. 신학(Theology): 절대자의 학문 즉, 그것은 마치 철학이 과학중의 과학(science of Science)이라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

III. 사회과학 및 정치학(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여기에는 개인을 사회나 국가에 있어 인간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관한 모든 논문들도 포함된다. 정신적 존재로서 개인의 본질적 생활은 사회유기체에 있어 결합의 수

(A) Science	{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	Philosophy	I
				Theology	II
				Jurisprudence	III
				Politics	IV
				Social Science	V
				Philology	VI
				Mathematics	VII
				Physics	VIII
				Natural History	IX
				Medicine	X
				Useful Arts	XI
(B) Art	{	{	Fine Arts	XII	
			Poetry	XIII	
			Prose Fiction	XIV	
			Literary Miscellany	XV	
(C) History	{	{	Geography and Travels	XVI	
			Civil History	XVII	
			Biography	XVIII	
(D) Appendix		Appendix-Miscellany	XIX		

<그림 1> 해리스 분류법의 기본체계

단에 의해 개인의 단순한 자연적, 개인적인 상태위에 그 향상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법률(Jurisprudence): 사회유기체가 외부에서 개인에게 작용하는 강제적인 필연으로서 나타나는 영역이 포함된다.

② 정치학(Politics):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대해 반작용하며, 보편적인 것의 자유로운 생산자로서 법률의 테두리 내에 자신을 두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영역이 포함된다.

③ 사회과학(Social science): 경제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은 노동의 구분에 의한 여러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노동은 어떻게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에 대한 봉사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영역이며, 교육으로서의 사회과학은 개인을 사회유기체의 관습으로 인도하는 과정 즉, 지성이라는 도구 사용을 획득하는 가운데 인간의 견습 기간을 나타내는 영역이 해당된다.

④ 언어학(Philology): 언어학은 사회과학 및 정치학의 구분 영역에 들어 있다. 그것은 언어의 과학에 있어 모든 것을 연결하기도 하고 조직화할 때 기초가 되는 도구과학이다. 언어(단어)는 이성의 이미지이며, 자연적 산물은 아니고 자기 의식적 사유의 발명이다. 그것은 발견되는 것(found)이 아니라 일부는 시적인 공상에 의해, 일부는 반성적 오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made)이다. 이를테면 정신(mind)은 언어에 의해서 결정(結晶)되고 고정된다는 이유에서 언어학을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연결하는 이음새로 두고 있다. 사람들의 언어는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인 조직위에서 행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업적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학문은 인간이 그러한 것에 따라 사회유기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며, 그로 인해 강제가 내재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수단을 다루는 영역이 해당된다.

IV. 자연과학 및 유용한 기술(Natural sciences and Useful arts): 전자는 자연의 법칙을 개시하고, 후자는 그것을 사회적 사용에 응용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간에 있는 것이 일부는 과학이고, 일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이다.

① 수학(Mathematics)은 자연의 순수형식 즉,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다.

② 물리학(Physics)은 역학적으로 다루는 자연이다. 그래서 정량적이며, 수학적이다.

③ 박물학(Natural history)은 유기적으로 간주되는 자연이며, 그래서 정성적이고 記述的이다. 화학은 정량적인 것에서 정성적인 변화를 형성한다. 그것은 양과 질의 차이를 구성하는 영역이다. 천문학은 수학과 박물학에 속한 하이브리드이다. 박물학은 우리가 광물 혹은 지구 유기체를 갖고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음으로 식물과 동물을 거쳐 간단한 자연존재(민족학)로서의 인간으로 나아가간다.

④ 의학(Medicine)은 엄밀하게는 박물학과 유사하며, 그 주제는 박물학과 같은 내용을 새로운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⑤ 유용한 기술(Useful arts) 및 무역(Trades)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순수하게 경험적인 요소와 연결하는 것으로 나아가간다.

(B) 예술(Art)

I. 미술(Fine arts)

II. 시(Poetry)

III. 소설(Prose fiction)

IV. 문학 잡문(Literary miscellany): 수사적 저작(연설)과 문학적 수필이 여기에 해당된다.

(C) 역사

I. 지리와 여행(Geography and Travels): 역사의 첫 번째 또는 가장 외적인 곳에 분류되어 있다.

II. 시민의 역사(Civil History): 역사 중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유형이다.

III. 전기와 서간(Biography and Correspondence): 문장학(Heraldry)과 계통학(Genealogy)도 여기에 해당된다.

(D) 부록(Appendix)

부록은 위의 3가지 구분 모두에 해당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 부가한다.

한편 해리스는 이 분류법에 대해 실제적 가치가 있는 특징으로서 번호부여(numbering)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리스 분류법에서 위생학(Hygiene)은 'Science' → 'X. Medicine' → 'Pathology and Therapeutics' → 'c. Hygiene'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Sci. X. 5. c'와 같이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해리스 분류법에는 이미 1에서 100까지

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위생학'을 '57. c'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기호화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는 '31. e. (3)'과 같이 기호화 할 수 있어 배가나 출판에 큰 이점이 있다고 해리스는 부연하고 있다(Harris 1870, 124).

이와 같이 해리스 분류법은 문헌을 서가에 주제순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100구분을 숫자로 표시한 후, 각류의 세목은 알파벳 소문자 한 개를 부가하고, 세목을 다시 세분할 때는 원괄호와 함께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였으며,⁴⁾ 동일한 유에서는 저자 및 서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다.

4. 해리스 분류법에 있어 베이컨, 헤겔, DDC와의 관계

4.1 베이컨의 영향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리스 당시 미국의 도서 관계에는 베이컨의 학문분류와 함께 프랑스 분류법으로 알려진 부루네 분류법이 혼재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다른 정신능력 즉, 기억, 상상, 이성을 지식구분의 대전제로 하여 여기에 대응하는 학문을 각각 역사, 시학, 과학으로 구분하였다는 베이컨의 사상을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Harris 1870, 115), 이 베이컨의 체계를 역으로 배열하면 과학, 예술, 역사의 순서가 된다(Harris 1870, 119)라고 자신의 분류법을 소개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해리스 분류법이 베이컨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언급이며, 앞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리스 분류법과 베이컨 분류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리스 분류법이 베이컨의 분류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중간에 베이컨학파인 존스톤의 분류체계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Comaromi 1983, 136-138). 앞서 <표 3>에서 존스톤의 분류체계는 '역사, 철학, 시학'이라는 베이컨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면

서 마지막 부분에 일반전집 성격의 'Polygraphs'를 추가하였고, 해리스에서는 역베이컨식이면서 'Miscellany'가 추가되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헤겔 철학의 영향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학문⁵⁾을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의 세 가지로 구분한 후 다시 논리학은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으로, 자연철학은 역학, 물리학, 유기 물리학으로, 정신철학은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절대정신은 예술, 계시종교, 철학으로, 예술은 <표 4>에서와 같이 조형예술(건축, 조각, 회화), 음향예술(음악), 언어예술(시: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구분하였다(Hegel 1998; 2008).

그라지아노는 해리스의 분류법이 베이컨의 분류에 연결되어 있다기보다 헤겔철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다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해리스는 베이컨의 분류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것을 역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3개의 주류구분이 적어도 좀 더 적절한 순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라지아노는 "이 3가지 지식의 구분이 헤겔의 3가지 논리적 존재적 수준인 개념(Begriff), 본질(Wesen), 존재(Sein)라는 지식의 수준과 본질적으로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개념'은 논리적 관념이 다른 관념과 관련되어 있는 이성의 단계이다. '본질'은 관념이나 심벌이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존재'는 개개의 특수한 존재나 사건의 단계이다. 요컨대 이러한 구분은 헤겔의 '변증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라지아노의 생각이다(Graziano 1959, 50).

다음은 해리스와 헤겔의 일치점을 지적한 것이다. 헤겔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은 해리스가 '의식적 체계'라고 주장하는 주류 I. 철학, II. 신학, III. 사회과학 및 정치학 등이 포함된다. 헤겔의 '본질' 단계에 상응하는 것은 해리스의 유기적 통일의 무의식적 체계로 주어지는 현실의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주류 IV. 자연과학 및 유용한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술(Art)의 분류에 있어서도 해리스와 헤겔은 일치

4) 해리스 분류법에는 주제마다 세분의 정도가 다르며, "68. Foreign and Oriental Poetry"에서는 a에서 i까지 세목이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주제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31. Education"의 세목 "e. Elementary Texts Books"에서는 다시 (1)에서 (6)까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세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통상적인 모든 학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철학적으로 추상화된 학문 즉,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을 지칭한다.

하고 있다. 해리스, 헤겔, 베이컨의 분류체계 가운데 <표 4>와 같이 ‘예술’의 구분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Graziano 1959, 51). 즉, 헤겔에 있어 ‘Kunst(예술)’ 분류 전개방법은 물질에 가장 가까운 예술인 건축에서 시와 산문(이것은 물질이나 감성으로 부터 가장 멀리 두고 있으며, 거의 상상성이라는 매체에 의존하고 있어 가장 순수한 예술임)으로 전개되는 분류로서 해리스 분류는 헤겔의 분류 그대로이다.

4.3 DDC에의 영향

영국의 문헌분류학자 Sayers(1955, 122)는 해리스와 듀이의 분류법이 본질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장된 것일까?

해리스 분류법과 DDC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DDC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듀이가 최초로 42개항으로 된 분류법을 출판한 것은 1876년이며, 이 해는 그 후 DDC의 발전에 있어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 해로 일컬어진다. 이와 같이 언급되는 것도 듀이가 1876년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 십진법’을 분류기호로 하여 오로지 아라비아숫자만의 순수기호법을 채택하고 있는 때문이다(小倉親雄 1977, 233-234). 듀이는 이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 이점을 정확성, 경제성,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기호법이 아라비아숫자 십진법이라는 형태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분류법의 근간을 부호대신에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구조화하도록 결정한 후, 분류항목의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듀이는 소위 역 베이컨식 배열을 채용할 것을 생각했다. 듀이는 여기에 대해 “분류법의 9개수를 채워나가는데 있어서는 세인트 루이스 도서관의 역베이컨식 배열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혹은 “별도로 각각의 부문에 있어 여러 교수의 도움과 관심 있는 도서관인의 협력을 얻어 1872년부터 76년까지 역베이컨식의 순서에 따라 10개의 유, 100개의 강, 그리고 1,000개의 목을 만들어 나갔다”라고도 기술하고 있다(小倉親雄 1977, 234).

그런데 듀이가 이러한 세인트루이스 도서관에 있어 ‘역베이컨식’이라 부른 것은 해리스에 의해 고안된 분류법이고, 그것은 베이컨의 학문분류에 있어 배열 순서를 뒤집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미국도서관의 분류는 1870년에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 도서관을 위해 해리스가 고안한 체계를 바탕으로 비롯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앞서 제시한 <표 3>에서와 같이 DDC에서 ‘신학’이 ‘철학’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거나 ‘사회학’과 ‘역사’가 머리 떨어져 있는 점, 그리고 ‘언어학’과 ‘문학’이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이러한 문제는 20세기 초반의 분류학자들에게 커다란 관심사였는데 만족할 만한 해결이 없었지만, 레이디커에 의해 듀이의 주류 구분순서는 해리스 분류법의 순서에 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하나의 시사점을 갖게 했다(Graziano 1959, 45).

듀이가 해리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1873년 5월 9일자 해리스의 편지(Leidecker 1945, 139)에서 듀이는 “나는 당신의 세인트 루이스도서관을 위해 분류체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듣고

<표 4> 해리스, 헤겔, 베이컨의 예술분야 분류체계

Harris(1870)	Hegel(1823)	Bacon(1605)
64. (B) Art	Kunst (예술)	Poesy
65. X II. Fine arts	[Bildende Kunst(조형예술)]	
a. Architecture	1. Architektur(건축)	A. Narrative or Heroic (Epic and Lyric)
b. Sculpture	2. Skulptur(조각)	B. Dramatic
c. Drawing and painting	3. Malerei(회화)	C. Allegorical.
d. Engraving and lithography		Fables, mythologies, etc.
e. Pictures	[Tönende Kunst(음향예술)]	
f. Music	4. Musik(음악)	
66. X II. Poetry	[Redende Kunst(언어예술)]	
...	5. Poesie(시)	
69. X IV. Prose fiction		

6) <표 4>는 Graziano(1959, 51)가 소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함.

있다. 나는 당신의 분류체계가 게재되어 있는 논문을 읽었다. 그리고 그 계획안이 잘 될 수 있다는 데 감사드린다. 당신이 분류체계 구축을 하면서 사용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1876년 “듀이가 세인트루이스 계획안과 뉴욕 도제도서관 계획안이 그 자신의 것과 유사해서 걱정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鯨井俊彦 1984, 20).

5. 결론

해리스 분류법과 관련하여 해리스의 사상적 활동과 해리스 당시 미국의 문헌분류 흐름을 살펴본 후,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원리 및 내용, 베이컨과 헤겔, DDC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해리스는 미국의 교육자이면서 대표적인 헤겔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둘째,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해리스 분류법의 구성체계는 무엇보다 베이컨의 분류순서를 도치시킨 역베이컨식으로 배열하였다고 해리스가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해리스 분류법에는 어디에도 헤겔의 사상을 반영하였다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셋째, 해리스 분류법이 발표된 시기에 해리스는 헤겔 주의자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헤겔 해설자였으므로 그의 분류법에는 헤겔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헤겔의 사상이 분류체계 곳곳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예술분야의 전개 순서는 해리스와 헤겔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베이컨의 분류사상이 반영되어 역베이컨식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주장이며,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베이컨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존스톤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명옥. 1993. 서양의 자료분류법의 발달과정: 고대에서 해리스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 185-213.
- 김옥희. 1994. 『認識論的 主題觀點에서의 知識과 文獻分類의 展開考』.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오동근. 2001. 『DDC 연구』. 대구: 도서출판태일사.
- 윤희운. 2010. 『정보자료분류론』, 완전개정 제3판. 대구: 도서출판태일사.
- 정필모. 1971. 『文獻分類法』. 서울: 中央大學校出版局.
- 헤겔, C.W.F. 1998. 『論理學』. 금계숙 역. 서울: 서문문화사.
- 헤겔, C.W.F. 2008. 『예술철학』. 한동원, 권정임 옮김. 서울: 미술문화.
- 加藤宗厚. 1959. 『圖書分類法要設, 改正增補版』. 東京: 理想社.
- 綠川信之. 1996. 『本を分類する』. 東京: 勁草書房.
- 小倉親雄. 1977. 『アメリカ圖書館思想の研究』.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庭野義英. 2000. 19世紀米國における理科教育に関する考察: W.T.ハリスの理科教育論. 『上越教育大學研究紀要』, 20(1): 7-18.
- 鯨井俊彦. 1982. W.T.ハリスにおけるヘーゲル哲學の受用過程について(1). 『日本デューイ學會紀要』, 23: 27-33.
- 鯨井俊彦. 1984. W.T.ハリスにおける圖書館分類思想の考察. 『明星大學研究紀要: 人文學部』, 20: 11-24.
- Comaromi, John P. 1983. The Foundation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The First Two Editions. In *Melvil Dewey: The Man and the Classification* / ed. G. Stevenson and J. Kramer-Greene (Albany, New York: Forest Press): 135-147.
- Comaromi, John P. 1976. Knowledge Organized is Knowledge Kept: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873-1976. *Quarterly Journal of Library of Congress*, 33(4): 311-331.
- LaMontagne, L. E. 1961. *American Library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brary of Congress*. Hamden, Conn: Shoe String Press.
- LaMontagne, L. E. 1972. Historical Background of Classification. In *Reader in Classification and Descriptive Cataloging* / ed. by A.F. Painter

- (Washington: NCR Microcard Editions): 24-31.
- Harris, W. T. 1870. Book Classification. *The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 Vol.4: 114-129.
- Leidecker, K. F. 1945. The Debt of Melvil Dewey to William Torrey Harris, *The Library Quarterly*, 15: 139-142.
- Graziano, E. F. 1959. Hegel's Philosophy as Basis for the Dewey Classification Schedule, *Libri*, 9(1): 45.
- Olson, Hope A. 2004. The Ubiquitous Hierarchy: An Army to Overcome the Threat of a Mob. *Library Trends*, 52(3): 604-616.
- Sayers, W.C.B. 1955.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Grafton.
- Troen, Selwyn K. 1975. *The Public and the Schools: Shaping the St. Louis System, 1838-1920*. Columbia: Univ. of Missouri Press.
- Wiegand, W. A. 1998. The 'Amherst Method': The origi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cheme, *Libraries & Culture*, 33(2): 175-94.